

한국특수교육 130주년 기념 특별전

특별전 OPENING 식순

전시 1 최초의 점자책, 손으로 보는 세상을 열다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 국가문화재 등록 기념전
2024. 5. 2. ~ 10. 31. / 기획전시실

전시 2 HUMAN sense & sensibility : 발달장애작가 6인 특별초대전
2024. 5. 2. ~ 6. 7 / 성산복합문화공간

※이 전시는 '2024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 전시展/視의 확장, 감각을 깨우다'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 **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14:00 _ 15:00

■ **장소** : 성산복합문화공간(성산홀 L층)

<오픈 강연> 발달장애인 인권 이해 이시창(발달장애인 인권강사)

참석자 소개/경과보고 황 정 숙(사회: 학예실장)

박물관장 인사말 김 시 만(중앙박물관장)

내빈 축사 박 순 진(총장)

외빈 축사 이 근 용(대구사이버대학총장)

축사 조 현 관(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축사 천 진 기(경상북도박물관협의회회장)

축사 김 정 권(대구대학교 명예교수/로제타홀 한글점자교재 기증자)

HUMAN _ sense & sensibility 관람(성산복합문화공간) 참석자 전원
작품 앞에서 작가 소개/작가대표 양희성 인사말

(2층 이동)

기념 촬영(1층 계단) 참석 내·외빈

최초의 점자책, 손으로 보는 세상을 열다 관람(기획전시실) 참석자 전원

다과 참석자 전원

폐회 안내 황 정 숙(사회자)

한국특수교육 130주년 기념 특별전

특별전 OPENING 식순

| 전시를 열며

이 땅에 특수교육이 시작된 지 1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지역사회 문화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으로 사랑·빛·자유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대구대 박물관은 <한국 특수교육 130주년>을 기념하며, '전시展/視의 확장, 감각을 깨우다'는 타이틀로 특별한 전시를 준비합니다.

전시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태동의 상징적 유물인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의 국가문화재 등록을 기념하는 <최초의 점자책, 손으로 보는 세상을 열다>를 시작으로, 예술적 감각으로 장애를 넘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금채민, 김기정, 양희성, 이다래, 정도운, 조영배 (발달장애인) 작가 특별초대전 <HUMAN _ sense & sensibility>로 이어집니다.

이 특별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4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이 운영합니다. 대구대 박물관은 2024년 상반기 출발하는 두 전시에 이어, 9월에는 '보는 전시'의 벽을 넘어 다양한 감각 활용을 고민하고 모색한 창의적 작품과 함께 '전시展/視의 확장, 감각을 깨우다'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특수교육 130주년을 기념하여 이어지는 대구대 박물관의 릴레이 전시를 통해 로제타 셔우드 홀이 130년 전, 장애, 여성, 계층이라는 단단한 사회적 장애를 넘어 출발했던 특수교육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를 발견하고, 또한 '함께'의 가치를 고민하며, 보이는 것을 넘어 마음의 시각을 확장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